

2026. 9. 28.(월)

회 원 조 사 팀

2026년 4/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목 차

I . 조사 개요	2
II . 2026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	4
1. 종합 경기전망	4
2. 업종별 경기전망	5
3. 항목별 경기전망	6
4. 기타 조사 내용	7

I 조사 개요

1. 조사 목적

- 본 조사는 안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활동과 유관기관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조사 대상

- 안산지역 제조업체

3. 조사 기간

- 2026년 8월 20일(목) ~ 2026년 9월 2일(수)
○ 보완 조사: 2026년 9월 3일(목) ~ 2026년 9월 10일(목)

4. 조사 방법

- 온라인 조사, 팩스 조사, 이메일 조사

5. 조사 내용

- 2026년 3/4분기 실적 및 2026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
(체감경기, 매출액, 영업이익, 설비투자 등)
○ 영업이익 목표 달성 전망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 등

6. 응답 현황: 총 89개사

업 종	응 답 수	업 종	응 답 수	업 종	응 답 수
섬유의복	5 (5.6%)	비 금 속	5 (5.6%)	전기전자	17 (19.1%)
목재종이	5 (5.6%)	철강금속	16 (18.0%)	운송장비	7 (7.9%)
석유화학	11 (12.4%)	기계설비	17 (19.1%)	기 타	6 (6.7%)

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작성 방법

- 응답 업체의 직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를 ‘호전’, ‘악화’, ‘불변’ 으로 표시한 후, 이를 지수화함.
-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한 경우 ‘호전’ 으로 표시한 업체가 ‘악화’ 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인 경우 ‘악화’ 로 표시한 업체가 ‘호전’ 으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냄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 (BSI)} = \frac{\text{‘호전’ 응답업체수} - \text{‘악화’ 응답업체수}}{\text{전체 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BSI = Business Survey Index

$$0 \leq \text{BSI} \leq 200$$

8. 제조업종별 재분류

- 본 보고서상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근거로 하여 유사 업종을 통합시켜 아래와 같이 재분류하였으며,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.(《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》 분류 기준)

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업종 재분류표

업종	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	재분류	비고
섬유제품 제조업	13	섬유의복	피혁, 염색, 가죽
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4		
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15		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16	목재종이	출판, 인쇄, 펄프
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17		
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		
가구 제조업	32		
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	석유화학	석유화합물, 도료, 의약품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		
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1		
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	22	비금속	고무, 플라스틱, 비금속광물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		
1차 금속 제조업	24	철강금속	철강, 금속, 조립금속
금속가공제품 제조업	25		
전자부품,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	전기전자	전기장비, 전자부품
전기장비 제조업	28		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	기계설비	기계설비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	운송장비	자동차 부품, 운송장비 부품
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1		
그 외 제조업	10,11,12,27,33,34	기타	정밀기기, 식료품 등

II 2026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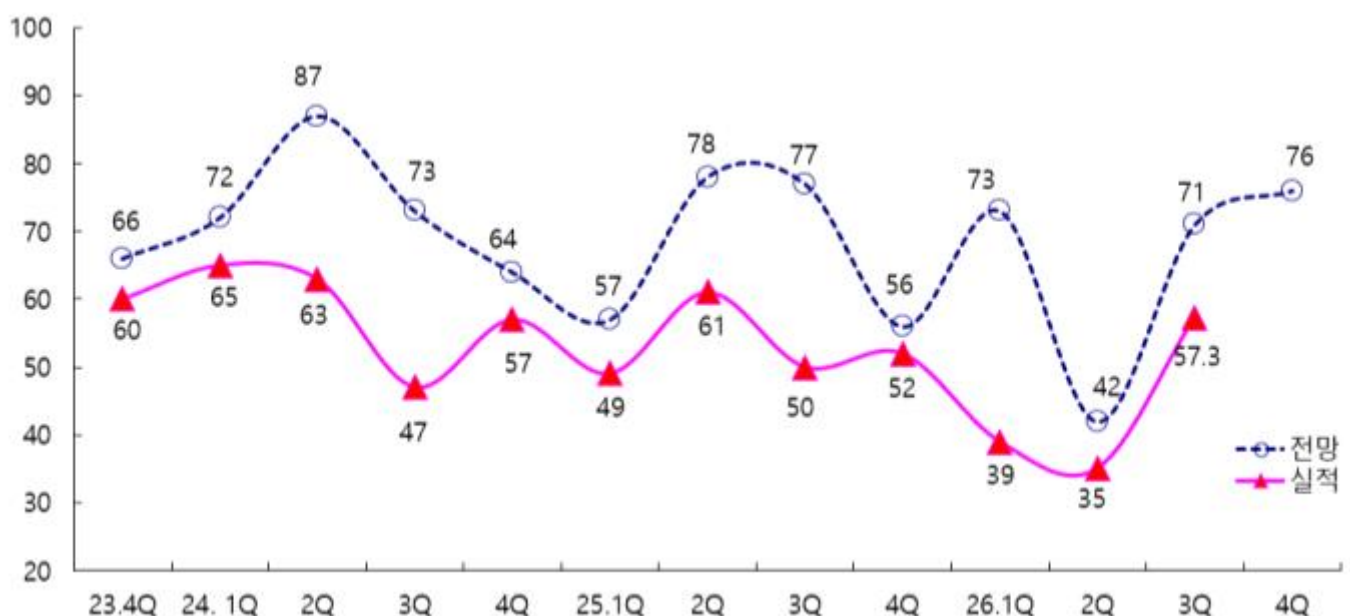
1. 종합 경기전망

안산 제조기업 26년 4분기 경기전망지수 '75.3', 경기 회복 흐름 불구, 여전히 기준치(100)에는 못 미쳐

- 전국(85.9)·경기(91.4) 대비 낮은 수준...안산 제조업 체감경기 회복세 '주춤'
- 전기전자 업종 유일하게 호조(106) 전망...제조업종별 경기 전망 온도차 뚜렷

- 안산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'2026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' 결과에 따르면, 2026년 4/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 종합 전망치는 '75.3'로 집계됐다. 이는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, 전국 종합 전망지수(85.9)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(91.4)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.
-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본 결과,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경기 전망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. 2026년도 2/4분기 이후 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, 여전히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,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(종합)



※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,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.

2. 업종별 경기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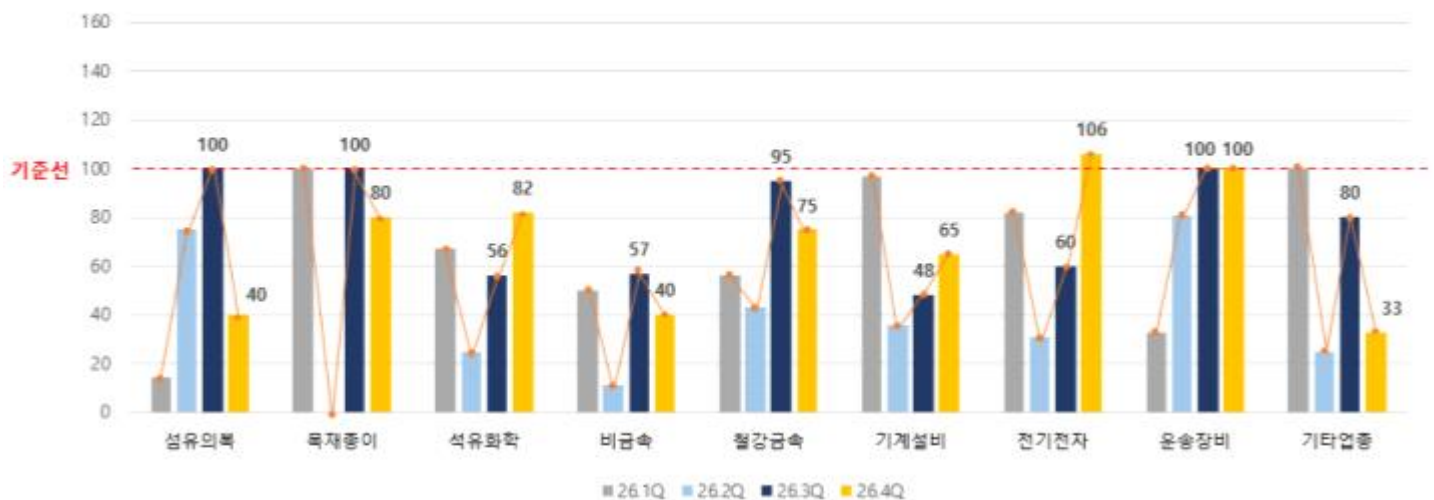
- 전기전자(106)업종은 호조 전망됨.
- 운송장비(100)업종은 보합 전망됨.
- 석유화학(82), 목재종이(80), 철강금속(75)업종은 부진 전망됨.
- 기계설비(65), 섬유 의복(40), 비금속(40), 기타(33)업종은 침체 전망됨.

제조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업종	2025		2026				비고	업종	2025		2026				비고
	3/4	4/4	1/4	2/4	3/4	4/4			3/4	4/4	1/4	2/4	3/4	4/4	
종합경기	76.7	53.3	72.9	41.8	70.9	75.3	☹	철강금속	73	67	56	43	95	75	☹
섬유의복	143	67	14	75	100	40	☹	기계설비	50	59	97	36	48	65	☹
목재종이	150	0	100	0	100	80	☹	전기전자	79	87	82	31	60	106	☺
석유화학	63	56	67	25	56	82	☹	운송장비	58	24	33	81	100	100	☺
비금속	100	0	50	11	57	40	☹	기타	94	50	100	25	80	33	☹

주: 1) ☺ = 호조(106~), ☺ = 보합(105 ~ 95), ☹ = 부진(94 ~ 75), ☹ = 침체(~74)

제조업종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

3. 항목별 경기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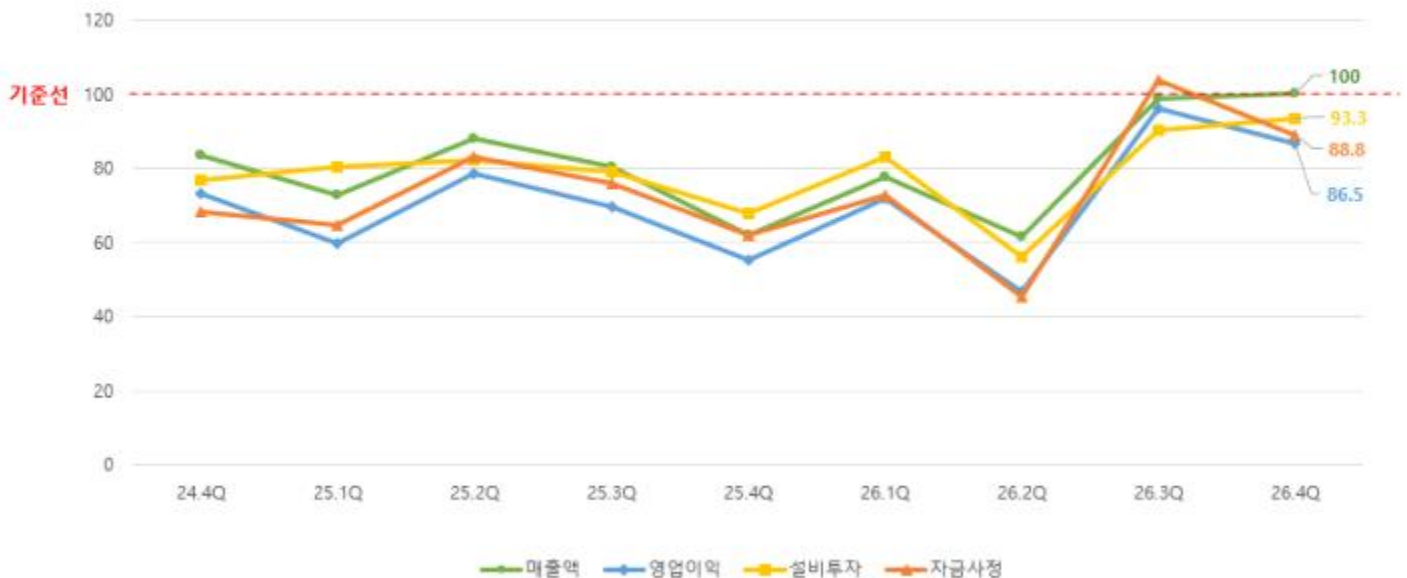
○ 매출액(100.0)은 보합,설비투자(93.3), 자금사정(88.8), 영업이익(86.5)는 부진 전망됨.

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구 분	2025		2026				비 고
	3/4	4/4	1/4	2/4	3/4	4/4	
종합(체감)경기	76.7	55.3	72.9	41.8	70.9	75.3	☹
매 출 액	80.6	62.1	77.6	61.7	99.0	100.0	☺
영업이익	69.8	55.3	72.0	46.8	96.1	86.5	☹
설비투자	79.1	68.0	83.2	56.0	90.3	93.3	☹
자금사정	76.0	62.1	72.9	45.4	103.9	88.8	☹

주: 1) ☼ = 호조(106~), ☺ = 보합(105~95), ☹ = 부진(94~75), ☯ = 침체(74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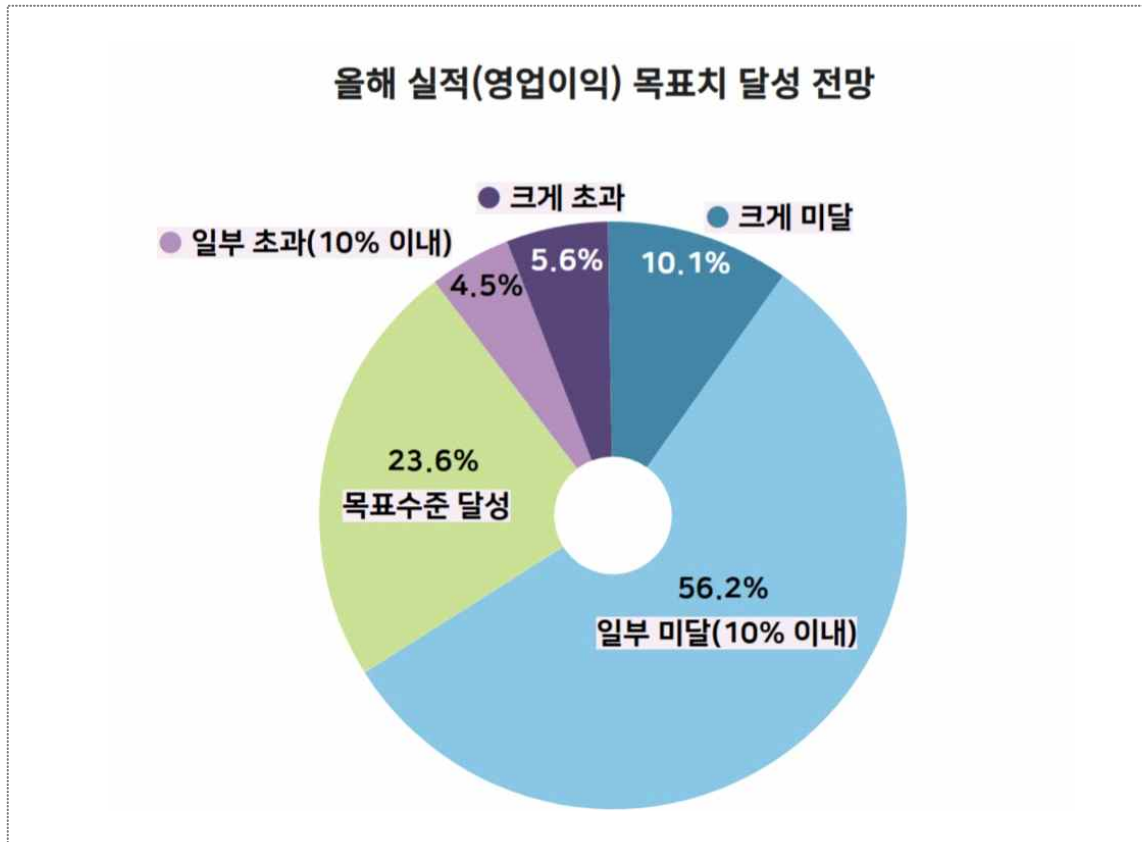
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



4. 기타 조사 내용

1) 귀사의 올해 실적(영업이익)이 당초 계획했던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

- 응답기업의 66.3%가 ‘미달’ [일부 미달(10% 이내) 56.2%, 크게 미달 10.1%]이라고 응답했고, ‘목표 수준 달성(23.6%)’, ‘초과 달성(10.1%)’ [크게 초과 달성 5.6%, 일부 초과 달성(10% 이내) 4.5%] 순으로 응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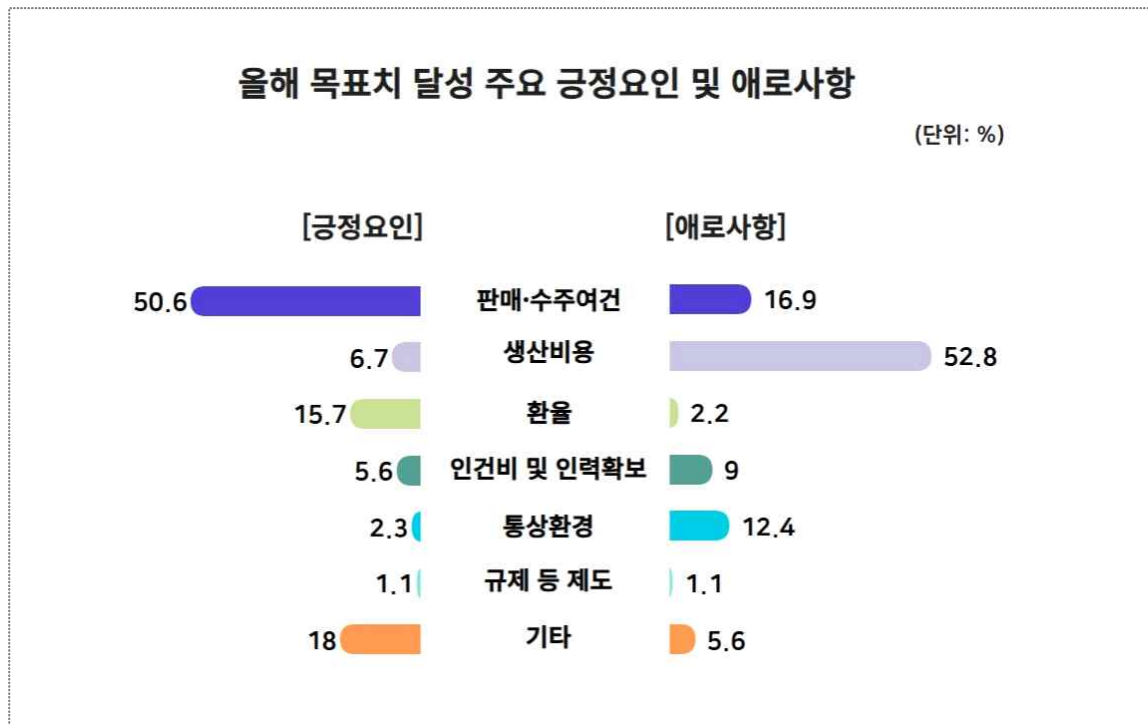


1-1)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긍정요인은 무엇입니까?

- ‘판매·수주 여건 개선’ 응답이 50.6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, 이어 ‘기타 (18.0%)’ ‘환율 안정(15.7%)’, ‘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 비용 하락(6.7%)’, ‘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(5.6%)’, ‘통상환경 개선(공급망 안정, 관세 인하 등 (2.3%))’, ‘제도(규제·인허가) 개선(1.1%)’ 순으로 응답.
- 기타 응답(16개사): 긍정 요인 없음(11개사), 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(2개사), 내수 경기 불황(1개사), 거래선 안정성(1개사),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 상승(1개사)

1-2)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?

- ‘원자재·에너지 등 생산 비용 상승’이 52.8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, 이어, ‘판매·수주 여건 악화(16.9%)’, ‘통상환경 악화(공급망 불안, 관세 등)(12.4%)’, ‘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(9.0%)’, ‘기타(5.6%)’, ‘환율 변동성(2.2%)’, ‘규제 인허가 등 제도(1.1%)’ 순으로 응답.
- 기타응답(5개사): 금융비용 증가 및 자금조달 애로(5개사)



2) 귀사가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·달러 환율 수준은 얼마입니까?

- 응답기업(76개사)의 적정 원·달러 환율은 평균 1,343원/달러로 나타났으며, ‘해당 없음’ (13개사) 응답은 평균 산출에서 제외

3) 귀사의 수입의존도(연간 매출액에서 수입 원자재·부품 등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)는 어느 정도입니까?

- 수입의존도를 조사한 결과, ‘50% 이상’ 응답이 19.1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, 이어 ‘10% 이상 20% 미만(18.0%)’, ‘10% 미만(15.7%)’, ‘20% 이상 30% 미만(13.5%)’, ‘30% 이상 40% 미만(13.5%)’, ‘없음(전량 국내 조달)(11.2%)’, ‘40% 이상 50% 미만(9.0%)’ 순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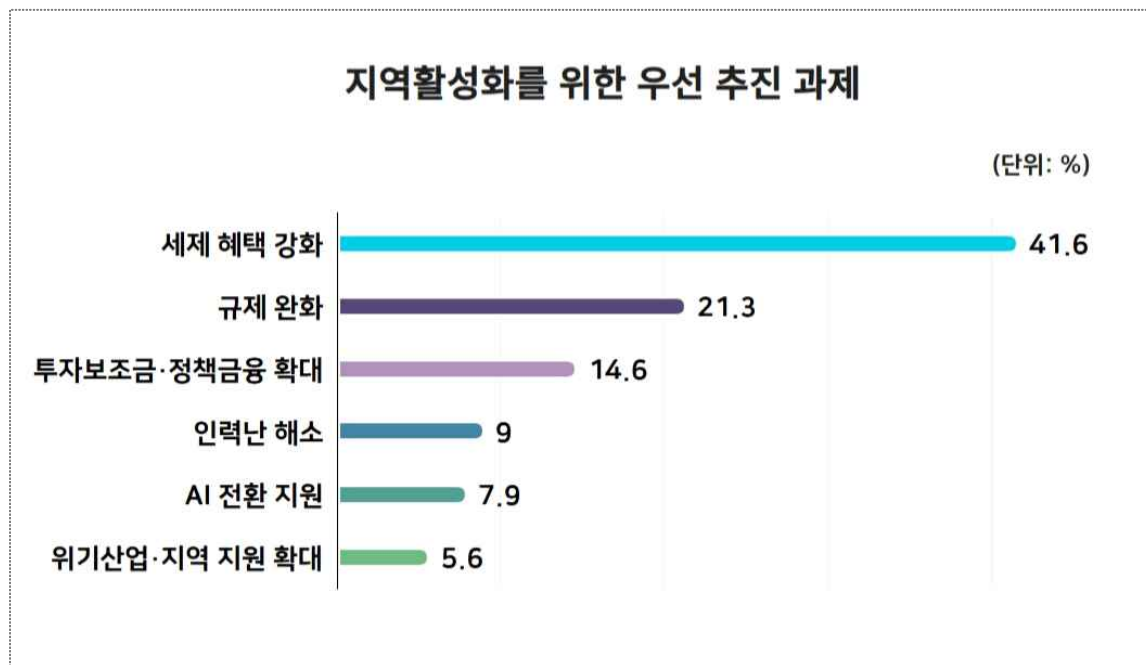
수입의존도

없음	10% 미만	10% 이상 20% 미만	20% 이상 30% 미만	30% 이상 40% 미만	40% 이상 50% 미만	50% 이상
11.2%	15.7%	18.0%	13.5%	13.5%	9.0%	19.1%

※ 소수점 계산으로 인해 $\pm 0.1\%$ 의 비율 오차가 있을 수 있음.

4)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- 응답기업의 41.6%가 ‘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(법인세 감면 등)’ 이라고 응답했고, ‘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(노동·환경 규제 등)(21.3%)’, ‘지역 투자보조금·정책금융 확대(14.6%)’, ‘지역 인력난 해소(지역 대학 채용 연계, 외국인 노동자 등)(9.0%)’, ‘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(스마트 공장 등)(7.9%)’, ‘위기 산업·지역 지원 확대(5.6%)’ 순으로 응답.



- ※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되는 보고서 및 각종 자료는 홈페이지 (<http://ansancci.korcham.net>)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※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의 또는 제안은 안산상공회의소 회원조사팀 【T. 031-410-3030(#247)】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본 보고서에 대하여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, 타 용도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표의견이 아니며,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.

○ 발행처: 안산상공회의소

○ 발행일: 2026. 9. 28.

[비매품]